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 지식과 교육요구도

전미순¹⁾, 강기정²⁾, 박성희³⁾
백석대학교 보건학부¹⁾,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²⁾, 서울대학교 간호대학³⁾

A Study on Pregnancy, Delivery, and Infant Rearing Knowledge and Educational Need of Marriage Immigrant Women

Mi-Soon Jeon¹⁾, Ki-Jung Kang²⁾, SungHee Park³⁾
*Division. of Health Science, Baekseok University¹⁾, Division. of Christian Studies,
Baekseok University²⁾,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³⁾*

= Abstract =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understand pregnancy, delivery, and infant rearing knowledge and educational need of marriage immigrant women to be utilized as a basic data for developing a suitable educational program.

Methods: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composed of one hundred twenty two married immigrant women who live in South Korea. The method used in determining the population was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he data were gathered by means of personal interviews using questionnaires.

Results: The mean score of pregnancy and delivery knowledge was 3.35, educational need was 3.64 out of 5, and infant rearing knowledge was 3.16, educational need was 3.66 out of 5. The pregnancy and delivery knowledge of the subjec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their present residential location and presence of children and their educational need varies according to their country of origin. The infant rearing knowledge on the other hand, showed notable differences according to presence of children while homeland and existence of children were the two major factors that greatly influenced the significant variation for educational need.

Conclusions: The score of pregnancy, delivery and infant educational need were higher than knowledge. The score of pregnancy, delivery, and infant rearing educational need garnered similar results. Thus it is suggested that further researches should be conducted for the development, application, and verification of pregnancy, delivery, and infant rearing education programs that consider knowledge and educational need of immigrant married women in South Korea.

Key words: Marriage, Women, Pregnancy, Delivery, Child rearing

* 접수일(2011년 7월 19일), 수정일(2011년 9월 19일), 게재확정일(2011년 9월 26일)

* 교신저자: 박성희,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Tel: 010-2693-1597, Fax: 02-765-4103, E-mail: sweetysunghee@hanmail.net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성비의 불균형과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남성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2000년 6,945건에 이르던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결혼은 2009년 25,142건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농어업종사자의 경우 전체 결혼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로 인해 한국은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2].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여 한국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며 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은 자녀와 남편 등 다문화가족 전체의 건강과 안녕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3].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연령상 20~30대가 90% 이상을 차지하며 주로 10~20세 연상의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나[4], 대부분 결혼과 동시에 임신·출산을 경험하게 된다. 임신·출산은 단순한 신체적인 경험을 넘어 여성의 심리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과정으로서[5], 여성의 삶에서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동시에 태아의 출생으로 인해 새로운 가족형태로 성장해 나가는 의미있는 단계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출산 후 산욕기 또한 신체 및 심리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모성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되는 생의 전환기로, 이 시기의 여성들은 때때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모성과 태아의 건강에 큰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6].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평균 결혼 후 1년 내에 임신을 하게 되지만 대부분이 스스로 임신·출산을 돌볼 능력이 부족하며[7], 평소 빈혈 등의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8], 임신·출산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게 될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능력과 의료서비스 지식의 부족, 낮은 임신·출산문화 및 조력자의 부재 등으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고충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지식을 주로 배우자와 시댁식구를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나[7] 그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고려되며, 일부는 배우자의 가부장적 태도와 통제 등으로 가족 내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9], 임신·출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습득조차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출산 후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제한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출산 후 대부분의 산모는 자녀 양육에 많은 의문을 갖게 되며, 특히 초산모의 경우 아기를 돌보며 여러 번의 당황함과 긴장감을 경험하는 등[10], 많은 여성이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역할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그러나 산욕 초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면 어머니로서의 자아개념이 높아지며 만족감을 갖게 되고[12],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13], 효과적인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산욕기부터 적절한 양육행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언어적 제한에 의한 양육정보 수집의 제한과 적절한 지지체계의 부족 등으로 양육 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내 잠재적인 문제들을 유발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이 건강한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 과정을 거치며 한국사회의 기본구성단위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들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교육프로그램들은 주로 한국어와 직업강좌 교육에 치중되어 있으며[14-16], 임신·출산 등의 여성건강 문제 및 영유아 양육과 관련된 교육들은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영유아양육 지식정도와 교육요구도를 파악한 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영유

아 양육 관련 지식정도와 교육요구도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식과 교육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 지식과 교육요구도를 파악한다.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별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 지식과 교육요구도를 파악한다.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 지식과 교육요구도와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대상은 충청남도 C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약 1,800명 중에서 150명을 임의 표출방법으로 선정하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28부를 제외한 122명이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C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방문지도사 5명과 번역사 4명(필리핀, 베트남, 중국, 일본인)에게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 사전교육을 받은 방문지도사와 한국 내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이면서 모국어와 한국어 표현이 모두 가능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인 번역사가 각 담당지역 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직접 방문하여 1:1 직접면접에 의한 간접기입식 방식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C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1:1 면접을 통해 간접기입식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과정 중 정확한 의미전달이 어려운 경우에 번역사의 설명을 참고하면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

료들은 단지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대상자의 개인적인 정보와 비밀을 보장한다는 내용들을 사전에 공지하였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교육내용 측정도구 중[17]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 내용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을 실시한 후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교육요구정도가 높게 나타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즉 임신·출산영역에서는 임신기간 동안의 관리방법 및 영양관리, 출산 후 산욕기 관리 및 유방관리, 가족계획(피임) 및 불임관리 등을 추가하였으며 영유아 양육 영역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발달과정,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건강검진, 건강문제 관리방법, 보건의료기관이용방법 등을 추가하여 각각 하부영역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건강분야의 연구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2인과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의 검증을 받아 사용하였다.

1) 임신·출산 도구

본 도구는 임신·출산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임신·출산 문항은 신체구조 및 생리영역 2문항, 임신관리영역 4문항, 산욕기관리영역 3문항 및 가족계획 및 불임관리영역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지식수준이 ‘매우 부족한 경우’ 1점에서부터 ‘많이 알고 있는 경우’ 5점까지였고, 교육요구도는 ‘전혀 필요 없는 경우’ 1점에서부터 ‘매우 필요한 경우’ 5점까지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수준과 교육요구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0.876이었다.

2) 영유아 양육 도구

영유아 양육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가 아이들을 기르고,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18] 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장발달영역, 기본양육활동영역, 영유아관리영역을 측정할 점수를 의미한다.

본 도구는 영유아 양육 8문항으로 성장발달영역 1문항, 기본양육활동영역 2문항 및 영유아관리영역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지식수준이 ‘매우 부족한 경우’ 1점에서부터 ‘많이 알고 있는 경우’ 5점까지였고, 교육요구도는 ‘전혀 필요 없는 경우’ 1점에서부터 ‘매우 필요한 경우’ 5점까지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수준과 교육요구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0.837이었다.

용하여 분석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 지식과 교육요구도 정도 및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 지식과 교육요구도 정도는 Kruskal-Wallis test 및 Mann-Whitney test로 확인하였다.

결 과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rs)	10-19	4 (3.3)
	20-29	79 (64.8)
	30-39	32 (26.2)
	40-49	7 (5.7)
Religion	Christianity	9 (7.4)
	Catholicism	15 (12.3)
	Buddhism	47 (38.5)
	Others	20 (16.4)
	None	31 (25.4)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11 (9.0)
	Middle school	36 (29.5)
	High school	46 (37.7)
	College, University	29 (23.8)
Occupation	Have	11 (9.0)
	None	111 (91.0)
Monthly income (/1000won)	Less than 1,000	16 (13.1)
	1,000~under 2,000	43 (35.2)
	2,000~under 3,000	54 (44.3)
	More than 3,000	9 (7.4)
Homeland	Vietnam	54 (44.3)
	Philippines	21 (17.2)
	Chinese	20 (16.4)
	Korean-Chinese	5 (4.1)
	Japan	8 (6.6)
	Others	14 (11.5)
Residential district	Town(Eup)	29 (23.8)
	Township(Myeon)	21 (17.2)
	Village(Dong)	72 (59.0)
Marriage method	Matchmaking service	32 (26.2)
	Introduction of acquaintance	48 (39.3)
	Introduction of agency	11 (9.0)
	Love	20 (16.4)
	Others	11 (9.0)
Children	None	44 (36.1)
	Have	78 (63.9)

연령은 20대가 6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가 26.2%이었다. 종교는 불교가 38.5%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고졸 37.7%, 중졸 29.5% 순이었으며, 직업은 91.0%가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이었다. 가구원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인 44.3%, 100~200만원 미만인 35.2%이었고, 출신국은 베트남 44.3%, 필리핀 17.2%, 중국 16.4% 순이었다. 거주 지역은 동에 거주하는 경우가 59.0%로 가장 많았고, 결혼방법은 지인의 소개 39.3%, 중매업체 26.2%, 직접만남(연애) 16.4% 순이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가 63.9%였다.

2.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 지식 및 교육 요구도

대상자의 임신·출산 지식 및 교육요구도는

Table 2와 같다. 임신·출산 지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35점으로 나타났다. 그중 여성 및 남성 생식기의 구조에 관한 지식이 3.5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불임에 관한 지식이 3.1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하부영역별 임신·출산 지식 정도는 신체구조 및 생리 3.48점, 임신관리 3.34점, 산욕기관리 3.32점, 가족계획 및 불임관리 3.30점 순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 교육요구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4점으로 나타났다. 그중 태교방법에 관한 교육요구도가 3.8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불임에 관한 교육요구도가 3.3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하부영역별 임신·출산 교육요구도는 임신관리 3.74점, 산욕기관리 3.71점, 신체구조 및 생리 3.51점, 가족계획 및 불임관리 3.48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Knowledge level and education need of pregnancy and delivery (N=122)

Contents	Knowledge level	Education need	p [*]
	M±SD	M±SD	
Physical anatomy and physiology	3.48±0.97	3.51±1.16	0.71
Reproductive system of male and female (vagina, uterus, ovary, testis, scrotum, etc.)	3.53±1.18	3.45±1.25	0.46
Menstruation and menopause	3.43±1.10	3.57±1.20	0.41
Pregnancy management	3.34±0.92	3.74±1.19	0.001
Period and frequency of prenatal care during pregnancy	3.44±1.13	3.75±1.32	0.08
Nutrition management of pregnant women	3.30±1.01	3.80±1.26	0.003
Prenatal education	3.30±1.07	3.81±1.29	0.004
Normal signs and symptoms during pregnancy and delivery	3.31±1.14	3.61±1.25	0.05
Postpartum management	3.32±1.02	3.71±1.20	0.002
Postpartum care method	3.34±1.23	3.75±1.33	0.02
Breast management (breast/artificial feeding, solution of milk fever, etc.)	3.25±1.28	3.79±1.31	0.002
Right time of daily life and sexual activity after delivery	3.37±1.17	3.58±1.30	0.23
Family plan and infertility management	3.30±1.13	3.48±1.29	0.23
Family plan (contraception method & time, etc.)	3.43±1.17	3.61±1.31	0.35
Infertility (relating factors, artificial fertilization, etc.)	3.16±1.33	3.34±1.46	0.02
Mean	3.35±0.88	3.64±1.12	0.003

* p from Wilcoxon signed rank test

Table 3. Knowledge level and education need of infant rearing (N=122)

Contents	Knowledge level	Education need	p*
	M±SD	M±SD	
Growth and development	2.93±1.21	3.66±1.44	<0.001
Normal process of growth & development	2.93±1.21	3.66±1.44	<0.001
Basic nurture activity	3.44±1.30	3.44±1.48	0.94
Bath method	3.46±1.31	3.38±1.49	0.70
Breast/artificial feeding method (position, time, making eructation, etc.)	3.41±1.28	3.50±1.46	0.57
Health management	3.09±1.27	3.77±1.40	<0.001
Safety management and emergency care	2.97±1.27	3.82±1.38	<0.001
Vaccination (item, time)	3.20±1.25	3.72±1.38	0.002
Medical examination (item, time)	3.01±1.25	3.80±1.36	<0.001
Health problem management (fever, diarrhea, flu, pneumonia, enteritis, hand-foot-mouth disease, etc.)	3.07±1.25	3.79±1.42	<0.001
Health center utilization method (hospital, public health center, etc.)	3.22±1.32	3.73±1.47	<0.001
Mean	3.16±1.05	3.66±1.29	0.001

* p from Wilcoxon signed rank test

대상자의 영유아 양육 지식 및 교육요구도는 Table 3과 같다. 영유아 양육 지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16점으로 나타났다. 그중 목욕시키는 방법에 관한 지식이 3.4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정상적 성장발육과정에 관한 지식이 2.9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하부영역별 영유아 양육 지식정도는 기본양육활동 3.44점, 건강관리 3.09점, 성장발달 2.93점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양육 교육요구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6점으로 나타났다. 그중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법에 관한 교육요구도가 3.8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목욕시키는 방법이 3.3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하부영역별 영유아 양육 교육요구도는 건강관리 3.77점, 성장발달 3.66점, 기본 양육활동 3.44점 순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별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 지식과 교육요구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 지식과 교육요구도는 Table 4와 같다. 임신·출산 지식은 거주지역과 자녀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읍과 동에 거주하거나(p=0.004), 자녀가 있는 경우(p=0.006)의 지식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임신·출산 교육요구도는 출신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0).

대상자의 영유아 양육 지식은 자녀유무(p=0.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영유아 양육 교육요구도는 출신국(p=0.031)과 결혼방법(p=0.029), 자녀유무(p=0.008)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 지식과 교육요구도와의 차이

대상자의 임신·출산 지식과 교육요구도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3). 하위영역별로는 임신관리(p=0.001)와 산육기관리(p=0.0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영유아 양육 지식정도와 교육요구도와 차이를 검정한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하위영역별로는 성장발달(p=0.000)과 건강관리(p=0.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Table 4. Difference of knowledge level and education need of pregnancy and delivery and infant rear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22)

Characteristics	Categories	Pregnancy & Delivery				Infant rearing			
		Knowledge level		Education need		Knowledge level		Education need	
		M(SD) or Mean rank	p [*]	M(SD) or Mean rank	p [*]	M(SD) or Mean rank	p [*]	M(SD) or Mean rank	p [*]
Age (yrs)	10-19	39.00		79.88		38.25		76.75	
	20-29	58.09	0.15 [‡]	62.01	0.69 [‡]	63.09	0.32 [‡]	58.90	0.63 [‡]
	30-39	69.28		59.48		57.30		65.28	
	40-49	77.29		54.50		76.07		55.33	
Religion	Christianity	3.87(0.69)		79.72		3.92(0.73)		70.06	
	Catholicism	3.34(0.79)		61.23		3.28(1.26)		65.56	
	Buddhism	3.27(0.94)	0.21	65.69	0.07 [‡]	3.18(1.04)	0.06	59.43	0.72 [‡]
	Others	3.48(0.82)		66.10		2.94(1.16)		55.55	
	None	3.35(0.88)		47.02		3.15(0.91)		66.15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2.99(0.92)		3.18(1.63)		2.53(1.17)		69.45	
	Middle school	3.21(0.84)	0.19	3.76(1.08)	0.95	3.30(0.94)	0.20	60.56	0.70 [‡]
	High school	3.35(0.86)		3.57(1.06)		3.15(0.94)		57.23	
	College, University	3.64(0.88)		3.59(1.15)		3.23(1.25)		64.31	
Occupation	Have	3.62(0.82)		55.77		640.0		687.5	
	None	3.32(0.88)	0.29	62.07	0.57 [‡]	6863.0	0.74 [‡]	6693.5	0.88
Monthly income (/1000won)	Less than 1,000	3.20(0.80)		65.59		61.75		61.09	
	1,000~under 2,000	3.22(0.93)	0.45	64.57	0.72 [‡]	61.08	0.30 [‡]	57.75	0.89 [‡]
	2,000~under 3,000	3.48(0.86)		57.35		61.11		63.46	
	More than 3,000	3.45(0.85)		64.44		65.39		61.22	
Homeland	Vietnam	54.96		61.93		3.18(0.95)		62.38	
	Philippines	66.21		72.52		3.42(1.17)		58.13	
	Chinese	64.18	0.30 [‡]	40.20	0.01 [‡]	3.09(0.95)	0.80	54.73	0.03 [‡]
	Korean-Chinese	54.50		67.20		2.85(1.58)		69.93	
	Japan	84.56		46.31		3.00(1.53)		43.31	
	Others	65.14		80.39		2.88(0.94)		85.61	
Residential district	Town(Eup)(a)	3.66(0.65)		64.17		667.83		70.18	
	Township(Myeon)(b)	2.84(0.98)	0.004	57.50	0.80 [‡]	49.10	0.30 [‡]	63.76	0.20 [‡]
	Village(Dong)(c)	3.38(0.87)		61.59		62.57		56.63	
Marriage method	Matchmaking service	3.28(0.95)		67.83		3.11(1.18)		3.67(1.53)	
	Introduction of acquaintance	3.30(0.76)	0.91	65.83	0.09 [‡]	3.20(1.01)	0.86	3.93(0.92)	0.03
	Introduction of agency	3.34(1.14)		40.27		3.13(0.86)		2.72(1.42)	
	Love	3.43(1.07)		61.65		3.30(1.15)		3.85(1.04)	
	Others	3.41(0.45)		45.14		2.88(0.89)		3.09(1.77)	
Children	None	49.90	0.006 [‡]	63.90	0.58 [‡]	2026.5	<0.001 [‡]	3175.5	0.008 [‡]
	Have	68.04		60.15		1476.5		4205.5	

* p from t-test or one way ANOVA, results of multiple comparison through Scheffe method after ANOVA.

† p from Mann-Whitney test

‡ p from Kruskal-Wallis test

고 찰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식과 교육요구도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20~30대가 90% 이상을 차지하였고 대부분 전업주부로 나타나, 주로 20~30대의 젊은 여성이었으며 직업을 갖지 않은 경우가 약 90%로 나타난 결과[19]와 일치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출산 지식은 5점 만점 중 평균 3.35점으로 나타나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인식하는 임신·출산 지식이 5점 만점 중 3.44점으로 나타난 결과[17]와 유사하였다. 관련 선행연구 중 타 연구구도로 시행된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 지식이 총점 14점 중 8.6점[20], 산후 자가간호 지식이 4점 만점 중 1.97점[4]으로 보고되었다. 하부영역별로는 신체구조 및 생리가 3.48점으로 지식수준이 가장 높았고, 가족계획 및 불임관리가 3.30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대부분 20~30대로서 결혼 후 임신·출산을 경험했거나 고려중인 상태이므로 남녀의 신체구조 및 생리에 관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가족계획이나 불임에 대한 지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고려된다. 이에 대해 Chung 등[7]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33%가 피임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기존연구 결과, 임신·출산 지식이 높을수록 산전 자가간호 행위수준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21], 적절한 임신·출산 교육의 제공을 통해 자가간호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임신 지식과 준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정기적인 산전간호를 받지 않는 경우도 일부 보고되고 있으므로[22],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청되어진다. 또한 임신·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 산전간호 시작시기가 빠르고 산전간호 참여횟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23], 적절한 가족

계획 교육 등을 통해 준비된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출산 지식은 자녀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녀가 있는 경우의 지식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임신·출산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대부분 임신·출산 지식을 많이 습득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고려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임신부의 출산횟수가 증가하고 연령이 많으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지식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4, 24], 본 연구결과와 일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일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임신부와 달리 타국이라는 사회 환경적인 차이로 인해 연령이 많고 고학력인 경우에도 임신·출산 지식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출산 지식수준에 근거하여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일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출산 교육요구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64점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별로는 임신관리가 3.74점으로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가족계획 및 불임관리가 3.48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임신부가 원하는 지식 중 임신으로 인한 신체변화와 분만징후 등 임신 중 관리내용이 5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24]와 일치하였다.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출산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임신부들의 자가간호 행위를 증가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임신합병증을 감소시키며, 조산, 사산 및 신생아 사망률을 낮춤으로서 신생아 건강관리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20]. 또한 산전검진 수행 등의 의사결정시에는 배우자나 시부모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25], 향후 가족구성원을 포함한 교육 시행여부 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족계획 및 불임관리는 지식수준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요구도 또한 가장 낮게 나타나,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관련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11.4%가 불임이며, 14.8% 혹은 20.2%가 인공유산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7, 26], 피임을 전혀 모르며 적절한 정보원이 없는 경우도 18.1%로 나타나고 있으므로[19], 향후 가족계획 및 불임관리 등 가임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출산 교육요구도는 출신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태국이나 몽골, 파키스탄 등 비교적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비율이 낮은 기타 출신국 여성들은 자국민으로 구성된 국제결혼 이주여성 모임이나 정보교류 기회의 제한 등 정보습득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필리핀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록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교육자들과의 간단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교육내용의 전달이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고려된다. 필리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타 연구에서도 이들이 인터넷 조작기술과 글을 올릴 정도의 영어능력 등 많은 인적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27], 일부 유사한 견해를 보였다. 한편 중국동포처럼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서도 비교적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향후 출신국에 따른 교육요구도의 차이를 파악하여 적절한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영유아 양육 지식은 5점 만점 중 평균 3.16점으로 나타나,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인식하는 기초 육아상식의 현재수준이 5점 만점 중 평균 3.59점으로 나타난 결과[17]와 차이를 보였다. 관련 선행연구 중 타 연구도구로 시행된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신생아 양육지식이 4점 만점 중 1.90점으로 보고되었다[4]. 하부영역별로는 목욕과 수유 등 기본양육활동 점수가 3.44점으로 지식수준이 가장 높았고, 성장발달이 2.93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신생아 양육 지식 중 목욕방법이 가장 높은 지식수준을 나타냈다는 결과[4]와, 영아모들의 영아 초기발달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28]를 지지하였다. 양육지식의 부족은 양육자신감을 낮추며 양육행동을 어렵게 만들고, 부모효능감을 저해하여 부담감과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28], 적절한 양육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20~30대의 기혼여성으로서, 이질적인 문화나 관습, 중요한 조력자의 부족 등으로 양육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므로[4],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영유아 양육 지식은 자녀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녀가 없는 경우의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서 유아의 정서발달 관련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29],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 양육지식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28]와 차이를 보였으며,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재혼인 경우 혹은 동거가족 중 영유아의 유무 등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영유아 양육 관련 교육요구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66점으로 나타나, 한국인 산모의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5점 만점 중 평균 4.32점으로 나타난 결과 [30]와 차이를 보였다. 하부영역별로는 건강관리가 3.77점으로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기본양육활동이 3.44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영유아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건강관리가 목욕방법이나 수유방법 등의 기본 양육활동에 비해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Cho 등 [30]의 연구에서도 질환의 증상 및 관리법, 예방접종 등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양육 교육요구도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기본양육활동은 영유아 양육 관련 지식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교육요구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고려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영유아 양육 교육요구도는 출신국과 자녀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여, 자녀가

있는 경우의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출신국에서는 임신·출산 관련 교육요구도와 마찬가지로 기타 출신국과 중국동포 등에서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서 영유아 양육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영유아기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정에서 어려움 등을 겪으며 다양한 정보습득 요구가 증가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반해 아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 및 관련 교육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 지식수준과 교육요구도간에는 차이를 보였으며, 지식수준보다 교육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신관리와 산욕기관리, 영유아 성장발달 및 건강관리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향후 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 지식 및 교육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실제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및 이에 대한 효과검증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 계획 및 불임관리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요구도 또한 낮게 나타났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반복연구와 함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접근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상자 수가 충분치 않으며,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일부 국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교한 부분이 있으므로 결과해석 시 제한점이 있다.

요 약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식과 교육요구도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충청남도 C시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으로 150명을 임의 표출방법으로 선정하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28부를 제외한 122명이었으며,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임신·출산 지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35점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과 자녀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신·출산 교육요구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4점으로 나타났고, 출신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영유아 양육 관련 지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16점으로 나타났고, 자녀유무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유아 양육 교육요구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6점으로 나타났고, 출신국과 자녀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출산($p=0.003$) 및 영유아 양육($p=0.001$) 지식수준과 교육요구도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지식수준보다 교육요구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 지식보다 교육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 교육요구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존재 유무 및 자녀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또한 일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향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존재 유무 및 자녀의 연령에 제한을 둘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 지식수준과 교육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연구와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적용과 이에 대한 효과검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Statistics Korea. Population results of the 2009, Marriage, [cited 2010 October 19]. Available from: URL: http://www.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CTITLE&listid=MT_CTITLE_C/
2. Kim SJ, Lee CS, Kim BY, Choi BS, Kweon YR. The effect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program on social distance, attitude toward multi cultures and races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0;12(1B):211-225 (Korean)
3. Ahn OH, Jeon MS, Hwang YY, Kim KA, Yoon MS. An analysis articles for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related to health. *J Agri Med Community Health* 2010;35(2):134-150 (Korean)
4. Kim YA, Choi SY. A study on the level of postpartum self care knowledge and newborn baby care knowledge of im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09;11(4B):1883-1894 (Korean)
5. Jung MH, Kim JI.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prenatal emotional status, preparation for delivery, postpartum social support and postpartum blue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5;11(1):38-45 (Korean)
6. Jeong HG, Kim GH, Yeom SG, Song MS, An OH, Lee JH. Family support, intention of pregnancy and antenatal self-care of pregnant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3;9(3):319-326 (Korean)
7. Jeong GH, Koh HJ, Kim KS, Kim SH, Kim JH, Park HS, Lee YS, Han YR, Kim KY. A survey on health management of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ostpartum of immigrant women in a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9;15(4):261-269 (Korean)
8. Yang, SJ.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anemia among asia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0;12(5B):2579-2593 (Korean)
9. Hong GH. The gender politics of migration viewed through marriages between Chosun-jok (Korean-Chinese) women and Korean Men[master's thesis]. Seoul, Ewha Women's University, 2000 (Korean)
10. Lee HK. Construction of a maternal role attainment model in primiparas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2 (Korean)
11. Bang MR, Lee JH, Lee JA, Jung JY, Park SY, An OS, Park SH, Kim YH. Motherhood and role confidence in the immediate postpartum period.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0;6(2):291-304 (Korean)
12. Goals, G. A., Parks, P. Effect of early postpartum teaching on primiparas' knowledge of infant behavior and degree of confidence.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986;9:209-214
13. Lee JH. The effect of a childcare education for first-time mothers on newborn care behavior and confidence in maternal rol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998;4(3):322-331 (Korean)
14. Bang SW.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teaching materials for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2008;19(3):1-29 (Korean)
15. Yoon YS. An investigation on improving efficiency of visiting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for the interracial married woman [master's thesis]. Daejeon, Paichai University, 2009 (Korean)
16. Lim JH. A plan to establish the educational system for the marriage migrant women's

- Korean language education [master's thesis]. Busan, Kyungsung University, 2010 (Korean)
17. Huh MO. Analysis of multicultural family's demand on lifelong education [master's thesis]. Seoul, Korea University, 2009 (Korean)
18. Heo NJ. A study on the effects of child care subsidy policy on the mothers' employment decisions and rearing patterns of their infants and children [master's thesis]. Chuncheon, Hallym University, 2009 (Korean)
19. Kim MJ, Kim TI, Kwon YJ. A study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contracept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8;14(4):323-332 (Korean)
20. Kim EH, Lee EJ, Kim MJ, Park DY, Lee SH.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of pregnancy and delivery on pregnancy related knowledge, newborn care knowledge, and postpartum care self-efficacy of marriage immigrant women. *J Korean Acad Nurs* 2010;40(1):78-87 (Korean)
21. Park MS, Kim HW. A study on primigravida's antenatal self-care behavior and maternal knowledg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0;6(1):153-165 (Korean)
22. Lin, M. L., Shieh, C., Wang, H. H. Comparison between pregnant Southeast Asian immigrant women in terms of pregnancy knowledge, attitude toward pregnancy, medical service experiences and prenatal care behaviors. *The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008;16(2):97-108
23. Lin, M. L. Wang, H. H. Prenatal examination behavior of Southeast Asian women in Taiwan: a questionnair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008;45(5):697-705
24. An KJ, Choi YS, Kim JY, Jung JW, Kim YH. A survey on basic knowledge about delivery of pregnant women. *Journal of Clinical Nursing Research* 1999;4:111-135 (Korean)
25. Lee, L. C., Yin, T. J., Yu, S. Prenatal examination utilization and its determinants for immigrant women in Taiwan: an exploratory study. *The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009;17(1):73-82
26. Kim HS.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8;14(4):248-256 (Korean)
27. Kim DY. Inter-marriage migration and transnationalism focused on Filipina wives in South Korea. *The Southwest Asian Review* 2010;20(2):31-72 (Korean)
28. Lee KY, Chang YK, Lim HJ. The study on Korean mothers'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and child-rearing.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4;9(1):45-63 (Korean)
29. Lee SM, Jang JM. A study on parent efficacy and child rearing knowledge of parents in pregnancy.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9;16(3):251-273 (Korean)
30. Cho KJ, Jung Y, Paik SN. The educational needs and satisfactory about infant care of the mothers in the post - partum care cent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2000;6(3):344-353 (Korean)